

4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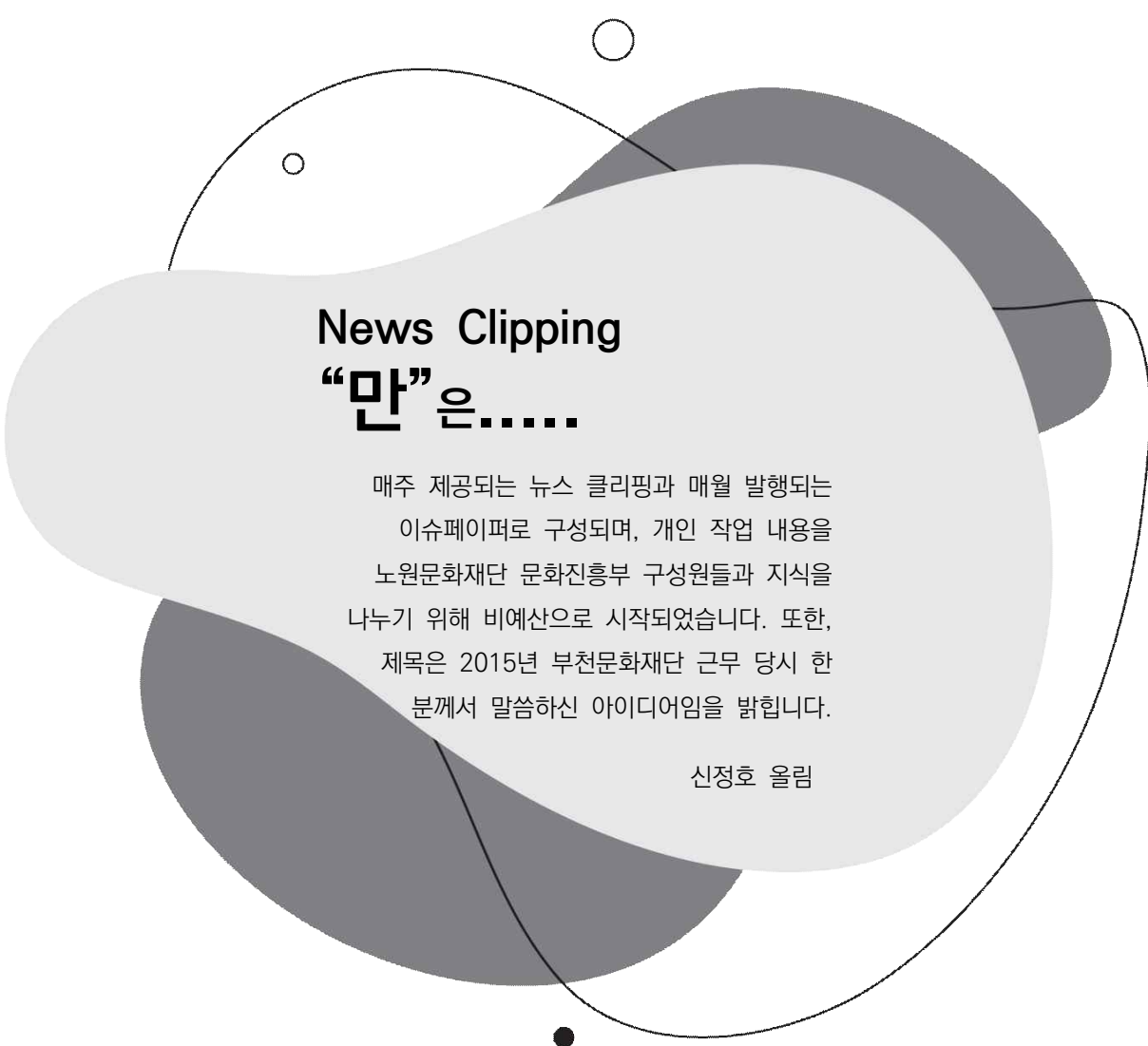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6.03.16.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2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9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16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23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30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37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44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49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51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54

(제37호) 시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59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64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69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73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77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82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86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91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95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99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103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108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113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117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121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125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129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133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137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141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145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149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153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157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161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164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167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170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173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175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178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180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183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85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87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89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91

(제47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핵심 쟁점
문화산업 금융정책 확대	예술기업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투자 정책으로 전환되는 흐름 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창작 기반 강화보다 산업 중심 정책 편중 가능성도 제기됨
문화정책 재정 확대	지자체 문화예산 증가와 문화도시 투자 확대 등 정책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 건립과 이벤트 중심 구조 가 지속되며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나타남
지역 문화 재정 격차	지역별 문화예산과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 가 제기됨
문화시설 확장 정책	미술관·문예회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나 운영 자원 부족과 콘텐츠 부족으로 ‘건립 중심 문화정책’의 한계 가 드러남
수도권 문화시장 집중	공연시장 매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문화시장 경쟁력 약화와 문화 소비 격차 가 심화되고 있음
문화공간 지속가능성	문화의 거리·도시재생 문화공간 등에서 지원 종료 후 침체 사례가 나타나며 조성 중심 정책에서 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이 제기됨
문화도시·콘텐츠 도시 전략	K-콘텐츠 거점, 문화관광 결합 정책 등 문화가 도시 경쟁력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 중심 정책이 지역 생태계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가 있음
AI 창작과 콘텐츠 산업	AI 기반 창작과 콘텐츠 산업 확대 속에서 저작권, 창작권, 인간 창작자의 역할 에 대한 제도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	생활문화와 시민 창작 프로젝트 확산으로 문화정책이 향유 중심에서 참여·경험 중심 정책으로 변화 하고 있으나 평가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성과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
문화정책의 사회적 기능 확대	청년 유출,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사회적 회복과 공동체 정책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 가 커지고 있음

■ 핵심 쟁점

① 확장 중심 문화정책의 구조적 한계

최근 문화정책은 문화도시 투자, 콘텐츠 산업, 문화시설 건립 등 **외형적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 자원 부족, 지역 문화생태계 미성숙, 정책 거버넌스 혼선 등 **실행 구조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② 문화시장과 문화재정의 지역 격차

공연시장과 문화예산 모두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공연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자체 1인당 문화예산 역시 큰 편차를 보인다. 이는 문화정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문화정책의 사회정책화

청년 유출, 국민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산업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정서교육, 시민 참여형 문화활동, 생활문화 정책 등이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④ 문화기관 운영 제도 논쟁

출자·출연기관 임기 연동 법안은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지만, 기관 독립성 약화, 정치적 교체 구조, 행정 공백 가능성 등 **법적·제도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 ‘확장’의 단계에서 ‘구조 완성’의 단계로 이동에 대한 고민 必

문화시설 건립, 콘텐츠 산업 투자, 문화도시 전략 등 문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투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보다 **운영 구조와 지역 문화생태계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문화정책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구조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최근 문화정책은 예술기업 금융지원, K-콘텐츠 거점, 문화도시 투자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산 격차와 수도권 중심 시장, 운영 기반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정책의 과제는 확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다. 문화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문화생태계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 **예술·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확대...창업보육·융자 437억·문화산업보증 도입으로 산업 성장 기반 강화**
 - 문체부, '2026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3월 9일까지 창업기업 모집(전국뉴스, 2026. 03. 09.)
 - 문체부, 2026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 초기·도약·성장 3단계 창업보육과 투자 연계로 예술기업 육성
 - 담보 없는 예술기업도 대출 길 열린다... 문체부, 437억 규모 융자·보증 지원(뉴스시, 2026. 03. 13.)
 - 문체부 437억 규모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보증 237억으로 예술기업 자금 접근 확대
 - 서울시,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문화산업보증' 전국 첫 도입(연합뉴스, 2026. 03. 09.)
 - 서울시 콘텐츠기업 수출 금융 지원 위해 전국 최초 '문화산업보증' 도입, 중소 콘텐츠기업 대출 채무 연대보증 제공
- **초과세수 기반 '10조+α 추경' 추진...민생 안정·소상공인 지원 위한 재정 투입 확대**
 - "벚꽃추경 실탄 착착"...달아오른 부동산·증시 덕에 1월 나라살림 11조 흑자(매일경제, 2026. 03. 12.)
 - 1월 나라살림 총수입 74.7조·지출 60.5조, 관리재정수지 11.3조 흑자...추경 재원 초과세수 활용 검토
 -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 지시...규모·내역 놓고 협의 착수(부산일보, 2026. 03. 12.)
 - 이재명 대통령 10조원+α 추경 편성 지시...중동 정세 대응·민생 안정 위해 소상공인·한계기업 직접 지원 추진
- **지자체 문화예산 증가 속 재정 격차 확대...재정자립도 하락·운영비 부담 등 지속가능성 논쟁**
 - '지방선거' 의식했다...올해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10% 증가(뉴스시, 2026. 03. 12.)
 - 2026년 지자체 문화예산 6.26조로 10.1%↑, 1인당 12.2만원...지역 간 최대 70만원 편차
 - 인천 부평·계양 재정자립도 10%대...인구 유출에 저성장 '오명'(경기일보, 2026. 03. 07.)
 - 인천 부평·계양 재정자립도 19%대... 산업 쇠퇴·인구 유출로 30년간 10~25%p 하락, 세입 기반 약화
 - "공주시 문화정책 전면 점검" 5편. 문화시설 확장 속도...공주시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뉴스세상, 2026. 03. 06.)
 - 공주시 문화시설 확장 지속(문예회관 180억 등)... 운영비 증가에 중장기 재정 추계·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지적
 - 재정난 겪는 세종시, 출연기관 인건비마저 휘청?...다트 NEWS, 24 2026. 03. 06.)
 - 세종시 총예산 2조829억, 출연기관 예산 감축...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돼 직원 불안 확대
- **지역 문화정책 재편 가속...거버넌스 논쟁 속 문화도시 투자·K-콘텐츠 거점 전략 확대**
 - [오늘의 창] 인천 문화정책 난맥상 원인은(경인일보, 2026. 03. 08.)
 - 상위계획 지연과 협력위원회 미구성 등 거버넌스 부재로 정책 혼선, 제3차 문화진흥계획 정상화 필요
 - [기고] 인천 문화의 미래는 있는가(경기일보, 2026. 03. 09.)
 - 인천 20년 넘게 국립문화시설·시립미술관 없는 문화소외 지적...재단 대표 전문성·리더십 강화 필요성 제기
 - 누구나 문화 즐기는 광주, 621억 쓴다(세계일보, 2026. 03. 10.)
 - 광주시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 추진 위해 621억 투입...3대 전략·85개 과제로 포용적 문화생태계 조성
 - 하남 미사섬에 'K-콘텐츠 도시' 뜬다(하남일보, 2026. 03. 09.)
 - 미사섬에 K-팝 공연장·촬영스튜디오·호텔 결합 'K-콘텐츠 도시' 추진, 관광객 300만·경제효과 2.5조 기대
- **지역 간 문화시장·예산 격차 확대...공연 유치력과 문화투자 편차 심화**
 - 공연시장 대구 vs 부산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티켓파워 부산이 대구보다 1.8배(매일신문, 2026. 03. 11.)
 - 2025 공연시장 부산 매출 1,017억, 대구 566억... 대형 공연 유치로 부산 공연시장 경쟁력 격차 확대
 - 올해 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21만5000원...인제 52만원 육박(강원도민일보, 2026. 03. 13.)
 - 강원 1인당 문화예술예산 21만 5,000원...인제 51만 7,265원 최고, 시군 간 27만원 격차 발생
- **문화재단 중장기 비전 재정립...지역 문화생태계·관광·창작 기반 강화 전략 추진**
 - 충북문화재단, 2026년 3대 역점 과제 추진(충청일보, 2026. 03. 10.)
 - 2026년 3대 전략 추진... 원도심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 예술 창작 기반 확대, 관광·MICE 경쟁력 강화
 - 인천서구문화재단, 2.0 시대 도약 비전 선포식...“예술로 숨 쉬고 문화로 꽃 피는 서구” 실현(기호일보, 2026. 03. 12.)
 - 서구문화재단 2.0 비전 선포, '예술로 숨 쉬고 문화로 꽃피는 서구' 목표로 2분부·4대 전략·11개 과제 추진

- **청년 유출 가속 속 지방소멸 심화...일자리·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확대**
 - “모두가 서울 살아야 할까요?”...지방과 서울 사이 고민하는 청년들(주간경향, 2026. 03. 09.)
 - 서울 집중은 욕망보다 생존의 결과이며, 지방 정착의 관건은 결국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삶의 질**
 - 문제는 청년 정책이다(주간경향, 2026. 03. 09.)
 - **포항 인구 50만 붕괴 속 청년 유출 심화·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이 도시 생존의 핵심 과제로 제시**
 - 자립하기에 3년은 짧다...청년들 뿌리 내릴 시간 쪼야(광주일보, 2026. 03. 11.)
 - **청년마을 8년간 51곳에 297억 투입했지만 정착 한계...3년·최대 6억 지원기간 확대와 주거·일자리 보완 필요**
- **K-컬처·전통자원 관광화 확산...콘텐츠·문화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자원 산업화 전략 부상**
 - ‘단종 얇이’ 영화에서 안 멈춘다...‘단종’ 책 판매 최대 80배 증가(문화일보, 2026. 03. 09.)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영향으로 단종 관련 도서 판매 **최대 80배·2565% 증가**, 역사 독서 관심 확산
 - 전통문화도 콘텐츠 시대...지역 문화 데이터 활용 전략 필요(전북일보, 2026. 03. 05.)
 - 전통문화 자산을 **데이터화해 콘텐츠·관광으로 확장**하는 전략 필요, 문화 데이터 축적을 넘어 **체험·IP 기반 활용 구조 구축 과제**
 - ④ “전국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것”(에너지경제, 2026. 03. 10.)
 - 관광공사 **‘K-관광마켓’ 추진...전통시장 11곳 글로벌 관광명소 육성**
 - 차원이 다른 예술여행 아트와 건축의 왕국, 카가와현 다카마쓰(머니투데이, 2026. 03. 11.)
 - 일본 카가와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와 건축 프로젝트로 ‘아트 관광도시’ 전환...나오시마 연 50만명 방문**
- **문화의거리 지속성 과제 부상...청년·예술·도시재생 결합한 체류형 문화공간 모델 확산**
 - ‘담빛길’ 문화예술의 거리, 이대로 방치하나?(담양뉴스, 2026. 03. 09.)
 - 담빛길 문화거리 조성 **5년 만에 작가 이탈·빈 점포 증가**, 2년·600만원 지원 종료 후 침체
 - 동성로 르네상스 본격화... ‘청년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재탄생(대경일보, 2026. 03. 08.)
 - 대구 동성로 르네상스 추진... **35억원 투입해 청년 문화·창작·공연 결합한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 조성**
 - [문화나들이] 도시재생과 미술관(대전일보, 2026. 03. 09.)
 - 공주 구도심 **폐건물과 기존 8개 갤러리를 연결한 ‘분산형 미술관’ 모델로 도시재생·관광 활성화 전략 제안**
 - "을지로에 거대 미술관 만들려고요" 이 예술가들이 꿈꾸는 미래(OhmyNews, 2026. 03. 09.)
 - **을지로 140여 공간을 잇는 ‘도시형 미술관’ 구상...재개발 대신 산업·예술 생태계 연결형 도시재생 제안**
- **예술인 창작 안전망 논쟁 확대...고용보험·창작공간·지원제도 실효성 보완 필요**
 - “예술가는 초대하고, 창작자는 내보내나”(나주신문, 2026. 03. 09.)
 - 나주 죽절현 매입 논란... **창작자 퇴거 요구로 문화자산 보존 철학 부재·문화행정 준비 부족 지적**
 - ‘안전망’인가 ‘생활의 부담’인가...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보완 시급(전북일보, 2026. 03. 03.)
 - 예술인 고용보험 **정부 지원(최대 36개월) 종료로 지역 예술인 부담 증가**, 저소득·단기계약 구조 반영한 지역형 보완 필요
 - 울산연극제 예산 확대·운영 개선에도 참여 저조(경상일보, 2026. 03. 10.)
 - 울산연극제 **예산 3,400만→60,00만(76%↑) 확대에도 참여 극단 3곳...공정한 심사·참여 구조 개선 필요 지적**
- **AI 기반 창작 확산...공동창작·IP·콘텐츠 산업 결합 속 저작권 논쟁 부상**
 - 시·소설 완성에서 공저까지...확 달라진 창작 풍경(무등일보, 2026. 03. 09.)
 - AI 문학 창작 확산으로 **공모전 응모 증가**, 인간-AI 공동창작 확대 속 **작가성·저작권 논쟁 제기**
 - "시로 캐릭터 만들고 굿즈까지"...광주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 질풍’(남도일보, 2026. 03. 10.)
 - 광주 콘텐츠기업 **AI 캐릭터 생성·굿즈 제작 플랫폼 개발...콘텐츠 창작·IP·팬덤 결합한 AI 기반 문화콘텐츠 모델 확대**
-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확산...창작 경험과 과정 중심 문화정책 전환 요구**
 - 시민의 일상이 책임 된다~‘책 쓰는 도시 광주 시즌 2’ 출판 프로젝트 시작(담양뉴스, 2026. 03. 09.)
 - ‘**책 쓰는 도시 광주 시즌2**’ 추진... 시민 14명 선발해 **도시의 일상과 기억을 기록·출판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 시민예술,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 사이(전북일보, 2026. 03. 11.)
 - 시민예술은 성과 경쟁보다 **참여와 과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정책도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지원으로 전환 필요
- **독서문화 재부상 ‘텍스트힙’ 확산...문학 IP·공연·K팝 결합한 콘텐츠 생태계 확대**
 - ‘텍스트힙’, ‘포엠티어’...우리는 돌고 돌아 책으로 돌아온다(시빅뉴스, 2026. 03. 10.)
 - ‘텍스트힙·포엠티어’ 확산 속 독서가 **Z세대 취향 문화로 재부상**, 독립서점 중심 새 독서문화 형성
 - 활자를 뚫고 나온 상상력...공연계 힘쓰는 ‘소설 원작 뮤지컬·연극’(데일리안, 2026. 03. 10.)
 - 소설 IP 활용한 **뮤지컬·연극 증가...탄탄한 서사·팬덤 기반으로 흥행 리스크 줄이는 공연 트렌드 확산**

- 엑소·아이브·키키까지...K팝, K문학과 손잡다(중앙일보, 2026. 03. 09.)
 - K팝 아이돌과 소설가·시인 협업 확대... **앨범 서사·세계관 강화를 위한 K팝-문학 결합 콘텐츠 확산**
- 수원시민 10명 중 9명 공공시설 이용...공원·도서관 인기(뉴스1, 2026. 03. 10.)
 - 수원시민 **88.7% 공공시설 이용**... 공원·도서관 이용 높고 삶의 질 개선 체감 77.2%

○ 국민 정서 불안 속 정서교육 강화...사회정서·예술교육 통한 마음건강 정책 확대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화 법제정 추진(한국교육신문, 2026. 03. 08.)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5년 계획·전담기관 설립 추진**
- 나우앤서베이 설문조사, 2026년 대한민국 국민 정서 상태 '경계 단계'... 불안·긴장 일상화 신호(한국투데이, 2026. 03. 05.)
 - 국민 정서 평균 **35.57점 '경계 단계'**... 30·40대·여성·무직군 불안·긴장 가장 높아
- 사회정서교육은 행복한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다(한국교육신문, 2026. 03. 05.)
 - 학생 **10명 중 3명 우울**, 교육부 2026년부터 **연 15차시 사회정서교육 의무화**... 정서안정·학폭예방 위한 학교 통합교육 강조
- AI 시대에 '사회정서교육'이 중요한 이유 [송인혁의 언리플레이서블](The Butter, 2026. 03. 09.)
 - AI 시대 교육은 지식보다 **공감·협력·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사회정서교육(SEL)** 강화 필요성 제기
- 서울교육청, '정서기반 예술 교육' 운영...소통문화 조성(뉴스1, 2026. 03. 10.)
 - 모든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도입...**뮤지컬·연극·영화 등 참여형 예술수업과 정서기반 예술교육 주간 운영**

○ AI 시대 창의성과 인성의 균형...놀이·지혜 기반 인간 역량 교육 중요

- 유아기, 놀이가 곧 배움이다(부산일보, 2026. 03. 09.)
 - 유아기 놀이는 단순 여가가 아니라 **언어·사회성·문제해결력 발달을 이끄는 핵심 배움**이며, 충분한 탐색 시간이 중요
- AI 시대 중요한 창의력, '이것' 없으면 독 될 수도?(코메디닷컴, 2026. 03. 11.)
 - AI 시대 창의력은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기적으로 흐를 수 있어 **도덕적 방향성이 함께 필요**

○ AI 시대 인간 창의성 부각...학교 예술교육 축소 속 문화예술교육 협력 확대

◎ 학교는 예술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을까(연세춘추, 2025.05.25.)

- 학교 예술교육 시수 **초등 13.8%→고교 4.9%로 감소**, 예술강사 예산 605억→287억→81억 축소

- "AI 시대의 '다음 수'는 인간의 창의성"... 지식재산처, 이세돌 초대 홍보대사 위촉(특허뉴스, 2026. 03. 12.)
 - 알파고 대국 10주년 맞아 이세돌 UNIST 교수,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 **AI 시대 인간 창의성 강조**
- 전주문화재단, 독일과 예술교육 협력...국제 네트워크 확대(전북도민일보, 2026. 03. 12.)
 - **전주문화재단 독일 베를린 어린이예술센터와 협약**...예술교육 워크숍·전시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럽까지 확대
- 군산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 본격 추진(국제뉴스, 2026. 03. 11.)
 -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12개교·약 3,000명 참여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추진**...학교 자율형 예술교육 확대

○ 국제예술학교·공립예술학교 추진...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확대 움직임

- 김경희 화성시장 예비후보 "프랑스 국제예술학교 유치 추진"(경기신문, 2026. 03. 11.)
 - 화성시 **프랑스 국제예술학교 유치 추진**...글로벌 예술교육 거점 조성 목표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토평2지구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 제안(매일일보, 2026. 03. 12.)
 - 구리 토평2지구 **2.2만세대·학생 6,600명 유입 예상**...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 설립 제안
- 충북교육청 '나도예술가' 본격화... 학교 안팎서 예술 향유(충부매일, 2026. 03. 11.)
 - 충북교육청 '나도예술가' 추진...**희망학교 20곳 선정, 취약계층 10가족 공연체험 등 학교·지역 예술교육 확대**
- 최광익 "춘천을 '글로벌 교육 수도'로...국제학교·예술교육원·군인가족 지원 약속"(뉴스핌, 2026. 03. 12.)
 - 춘천 글로벌 교육수도 비전...**기숙형 국제학교(200명)·예술교육원 설립, 월 20만원 교육바우처 추진**

○ 세대별 문화향유 격차 확대...고령층 접근성·청년 문화소비 변화 대응 필요

- 노년 문화 공백... 길어진 노후, 좁은 문화의 문(무등일보, 2026. 03. 09.)
 - **20대 문화관람률 91.4% vs 70대 23.1%**, 신체 제약·디지털 격차로 고령층 문화 공백 심화 정책 대응 필요
- "공연장 찾는 발길 주춤" 청년은 문화를 떠났다... "청년답게 진화 중"(천지일보, 2026. 03. 02.)
 - **청년 문화관람률 66% 수준, 콘텐츠 소비 3.86% 증가**... **비용부담 49.4%**, 문화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
- 이소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맞춰 관련 예산 등 지원책 확보해야"(헤럴드경제, 2026. 03. 10.)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 추진에도 **예산 203억→128억(37%↓) 감소**...**민간 부담 확대 우려 제기**
- 무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쇼' 골머리...참여 기회 낭비 우려(충북일보, 2026. 03. 12.)
 - 무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쇼 지속...**정원 10명 중 2~3명 불참, 강연은 최대 40% 미참석 발생**

- **세대갈등 인식 심화...가치관 차이와 경제 불안 속 사회통합 과제 부상**
 - 세대갈등 심각 83%...갈등 본질 두고 세대별 시각차(국민일보, 2026. 03. 11.)
 - 세대갈등 심각 인식 83%, 직접 경험 74%...원인 가치관 차이(51%)·경제불안(45%) 등 구조적 격차 지목
- **공연시장 성장 속 수도권 집중...공공지원과 지역 제작극장 역할 재조명**
 - 작년 공연 티켓 판매액 1조 7천억 원 넘어서...전년 대비 18.8% 증가(SBS 뉴스, 2026. 03. 11.)
 - 2025년 공연시장 티켓매출 1조7,326억(18.8%↑)·예매 2,478만매...수도권 판매액 비중 82.7% 집중
 - 팔리는 공연만 남는다면, 공공지원은 왜 존재하는가(OhmyNews, 2026. 03. 11.)
 - 공공예술지원은 흥행 공연 유통보다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순수기초예술을 보호·육성하는 데 우선 필요
 - 두 달간 1만 관객...낙동아트센터 '제작극장' 승부수 적중(국제신문, 2026. 03. 10.)
 - 부산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개월 1만명 관람... 지역예술인 중심 제작극장 모델 가능성 확인
- **미술시장 구조 변화...STO 도입과 중저가 거래 중심 시장 재편**
 - STO(증권형 토큰), 위축된 미술시장 새 활력소되나(뉴스컬처, 2026. 03. 12.)
 - STO 법제화로 미술품 조각투자 가능, 접근성·유동성·투명성·생태계 확대 등 4가지 효과 기대
 - 日 미술시장 2024년 매출 6.9억달러...거래 93%가 5만달러 미만 '중저가 중심 구조'(JAPAN KOREA, 2026. 03. 11.)
 - 2024년 일본 미술시장 6.9억달러·2% 성장, 거래 93%가 5만달러 미만 중저가 중심 구조
- **공공미술 확대 속 관리·운영 논란...공공예술 정책의 지속가능성 과제**
 - [조형예술] 문화(文化)와 예술(藝術), 그리고 건축물 미술작품(아트코리아방송, 2026. 03. 08.)
 - 서울 건축물 공공미술 4,433점, 조각 78% 중심... 작품 가격 1억~2억대 706점으로 중간가 시장 형성
 - 공공 미술에 예산 74억 원 들었는데.. QR전시도 먹통(춘천MBC, 2026. 03. 04.)
 - 공공미술 '우리동네미술' 사업 강원도 74억 투입, QR전시 먹통·작품 훼손 등 관리 부실 논란
- **글로벌 축제 전략 확산...콘텐츠·체류형 관광 결합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 방한 관람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글로벌축제' 선정(NWN내외 방송, 2026. 03. 12.)
 - 보령머드·안동탈춤·진주유등축제 '글로벌축제' 선정...방한 3천만 목표, 축제당 연 8억씩 3년 지원
 - [대만등불축제] "첨단 산업기지로 변신 성공한 대만 자이현"(국제뉴스, 2026. 03. 07.)
 - 2026 대만 등불축제 자이현 개막... 600여 등불 전시로 문화·첨단기술 결합한 관광축제 개최
 - 춘추 로컬 시대, 소도시가 살아남는 법(여성동아, 2026. 03. 12.)
 - 김천김밤축제 8만명, 구미라면축제 35만명 방문 등 콘텐츠·체류정책 결합이 소도시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
- **지역 문화인프라 확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통한 문화거점 조성 가속**
 - 고창군립미술관 첫 삽...“예향 고창의 새로운 심장”(주간해피데이, 2026. 03. 10.)
 - 고창군립미술관 착공... 지하1층·지상1층 규모로 전시실·개방형 수장고·창작스튜디오 갖춘 지역 문화거점 조성
 - '양평 문화지도 바뀌나'... 군, 역대 최대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윤곽(경인일보, 2026. 03. 12.)
 - 양평군 연면적 1만㎡·1,030석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추진...780억 투입·62개월 문화거점 조성 계획
- **공공기관 인력제도 개선 논의...채용 통합·비정규직 관행 점검 등 운영체계 변화**
 - 노동부, 공공부문 기간제 '쪼개기 근로 계약' 감독 나선다(OhmyNews, 2026. 03. 09.)
 - 노동부 공공부문 11개월 '쪼개기 계약' 근절 감독 착수... 지방정부 30곳 대상, 퇴직금 회피·비정규직 남용 점검
 - “중앙-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총원 제도 차별 없어야”(OhmyNews, 2026. 03. 09.)
 - 중앙 공공기관 3개월 기준 육아휴직 대체채용 인정, 지방은 6개월 기준 유지·출자출연기관은 제도 부재, 인력 공백 확대
 - 서울시,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출연기관 필기시험 주관(연합뉴스, 2026. 03. 12.)
 - 서울시 출연기관 17곳+공기업 1곳 총 18개 기관, 하반기부터 통합채용 도입... 필기시험 일괄 시행
- **문화재단 기관장 연임 논란...경영평가와 임기·책임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점수 추락에도 '3연임' 확정(평택시민신문, 2026. 03. 10.)
 - 평택문화재단 대표 경영평가 85.9→78.9점 하락·리더십 4.9→2.16점 급락에도 조례상 제한 없어 3연임 확정 논란
- **문화재단 이전 논쟁...예산 효율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 사이 정책 갈등**
 - 충북문화재단 이전, "예산 낭비"vs"행정 효율"(동양일보, 2026. 03. 11.)
 - 충북문화재단 이전 논란...임차료 월1,200만원·10년 10억 예산낭비 주장 vs 20~30명 인력 협업 효율성 강조

○ 문화콘텐츠 학문체계 논의 확대...출연기관 연구의 정책 실행력 강화 과제 부상

- 문화콘텐츠학 학문분류 등재 필요성 공론화... 국회 대토론회 개최(핀포인트뉴스, 2026. 03. 09.)
 - K-콘텐츠 산업 확산에 맞춰 문화콘텐츠학을 독립 학문으로 분류·등재 필요성 제기
- 연구는 많은데 정책은 없다... 충남 출자·출연기관 연구,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투데이충남, 2026. 03. 10.)
 - 충남 출자·출연기관 10곳, 예산 2,878억·사업 150건... 연구는 많지만 정책·예산 반영 체계 부족 지적

○ 6·3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도시 조성·예술인 지원·관광콘텐츠 개발 등 문화공약 관심 확대

- 유권자 절반, '지지 정당'보다 '기후공약' 최우선(MBC, 2026. 03. 10.)
 - 유권자 53.5%가 정당보다 기후공약 우선 투표 응답... 2040 석탄발전 폐지 72.2% 찬성, 기후가 핵심 표심 변수로 부상
- 박주민 의원, 서울 문화 정책 '세계문화수도 만들 것' 청년과 시민을 주인공으로 세운 3대 문화공약 공개(씨원뉴스, 2026. 03. 11.)
 - 서울 세계문화수도 비전·5만석 K-슈퍼아레나, 연150억 콘텐츠엑스포, 예술인주택 300호·창작지원 최대 3천만원 추진
- [공약] "양산 문화예술 대전환 이끌겠다"(경남도민일보, 2026. 03. 09.)
 - 문화재단 중심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축제예산 절반 지역예술인 배정 등 문화행정 혁신 공약 제시
- 문화예술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원주투데이, 2026. 03. 09.)
 - 원주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 기반 관광 콘텐츠와 '첨단 주막거리 벨트' 조성 통해 지역경제 성장 전략 제시
- 성현출 광주 남구청장 출마예정자, "예술을 일자리로...남구를 문화·기술 융합도시 조성"(글로벌경제신문, 2026. 03. 08.)
 - 문화예술 6차산업 도시 공약... 100억 재단 설립, C-Lab 창업·트리엔날레로 문화 일자리 창출 추진
-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충청투데이, 2026. 03. 12.)
 - 종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공실상가 200곳 활용, 예술가 월100만원 지원·연100억 생산효과

ISSUE

출자·출연기관 임기 연동 제도의 법적 논쟁과 제도 설계 과제

○ 출자출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 2026.02.19.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2년(1년 단위 연임)으로 법에 명시하고, 단체장 임기 종료 시 임원 임기도 3개월 후 종료하도록 규정해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

☞ 지자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동 확산...정책 연속성 vs 인사 공백 논쟁

- 시장 임기 맞춘 '순장조 조례' 출자·출연기관 공백 어찌나(부산일보, 2026. 02. 23.)
 - 부산 출자·출연기관 12곳 임원 임기 시장과 연동, 선거 시 동시 교체 가능... 행정 공백 우려
- 경기도의회 '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기재위 통과(한겨레, 2025. 09. 11.)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2년·연임 가능...지사 교체 시 임기 종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자체장 임기 연동 제도는 임기 안정성, 기관 독립성, 지방자치권 제한 등 법적 논쟁이 제기될 수 있어

- 첫째, 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지자체장 임기 종료시 3개월 후 임기 종료 등 → 임기 안전성 침해 논란 有
 - 임원의 임기는 임기보장 원칙과 직무 안정성과 연결되므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는 임기 보장 침해와 공공기관 독립성 약화, 정치권력에 따른 기관장 교체 논쟁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지방 출자 출연기관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됨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정부 정책 수행기관이면서도 독립적 경영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관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연동할 경우 정치적 교체 구조가 형성되어 전문성과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셋째, 지방자치권 침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 안은 기관 임기와 운영 구조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법률로 일괄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적 기관 운영권이 제한될 수 있어 헌법 제117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과 중앙 입법 간의 충돌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음
- 넷째,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체장 교체 시 다수 기관 임원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공모·검증·임명 절차가 집중되어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수 많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 지자체장 임기 연동형 출자·출연기관 임기제의 법적 쟁점과 제도 보완 필요

- 지자체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 임기를 연동하는 제도는 정책 책임성과 행정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임기 안정성·기관 독립성·지방자치권·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논쟁이 있어 임기 유예, 경과 규정, 적용 대상 조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

(한주를 정리하며)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지역문화 현장에서 일을 하며 한 주의 기사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들어 유난히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와 의회가 기대하는 방향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과 정책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K-콘텐츠 거점 조성, 문화도시 투자, 문화 인프라 건립, 글로벌 축제 전략 등 문화가 산업과 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의 외형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437억 원 규모 예술기업 금융지원과 서울시의 '문화산업보증' 도입은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의 이면에서는 문화정책의 구조적 균열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은 올해 6조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당 문화예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인구 유출 속에서 문화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재원과 지역 문화생태계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외형적 확장과 현장의 실행 기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화시장에서도 불균형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공연시장 규모는 성장해 지난해 티켓 매출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판매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연시장 역시 도시 간 격차가 확대되며 문화 소비 구조의 지역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실제 시장 구조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도시재생 문화공간은 초기 투자 이후 운영 기반이 취약해 침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양 '담빛길' 사례처럼 지원 종료 이후 예술가가 떠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상은 문화공간이 단순한 조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구조와 문화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건립과 이벤트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국민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문화정책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정서교육, 시민 참여 문화, 생활문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체계는 여전히 산업과 행사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 기반 창작 확산과 저작권 논쟁,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역시 문화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문화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확장' 자체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금융 지원과 산업 정책, 문화도시 투자와 인프라 건립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지역 문화생태계와 실행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규모와 속도에 비해 현장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은 이제 규모의 경쟁을 넘어 구조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립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방문객 수에서 체류와 생태계로, 단기 사업에서 장기 제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산업이자 도시 전략이며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만 집중하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더 단단한 정책 구조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 없는 확장만 반복하고 있는가?

질문을 끝으로 지난 한주를 정리해봅니다.